

폐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 현상

—18세기 후기 국어를 중심으로—

오 중 갑

<목 차>

- | | |
|------------------|-------------|
| 1. 서 론 | 3.2. ㅎ첨가 |
| 2. 음모음화와 분철 | 3.3. 유기음 표기 |
| 3. 폐음화에 따른 음운 현상 | 3.4. ㄹ~ㄴ 표기 |
| 3.1. ‘을~를’의 교체 | |

1. 서 론

1.1.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이 문자를 이용한 실제 발화의 표기에는 연철 표기, 이중표기, 분철표기의 세 방법이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들 중 연철 표기는 ‘소리대로’, 즉 형태소 경계가 음절 경계로 조정된 형태가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허웅, 1962 : 11, 이기문, 1972a : 119),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없는 듯하다. 이중표기는 어간(어근)말 자음이 후속하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에 중복 표기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표기법의 혼란으로 보기도 하고(이기문, 1963 : 145~146), 어간을 분리하여 표기하려는 표기자의 표기 의식과 현실음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전광현, 1967 : 47~48), 문법 의식의 발달에 따라 어절 중심 표기(연철표기)에서 단어 중심 표기(분철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이현규, 1976 : 230). 분철표기는 형태소 경계가 음절 경계로 조정되지 않은 형태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시킨 것으로, 그것의 출현 동인은 문법의식의 발달로 인정되고 있다(허웅, 1962 : 13, 이기문, 1978 : 208, 전광현, 1967 : 47~48, 이현규, 1976 : 231~232).

그러나 국어 표기법의 발달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에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표기법의 발달 과정부터 보면, 15세기에 이미 연철표기와 분철표기

가 다 나타나고¹⁾, 16세기경에 가서야 이중표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국어 표기법은 연철표기>분철표기>이중표기의 순서로 발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연철표기, 분철표기, 이중표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연철표기에서 분철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표기법이 이중표기란 종래의 해석보다는 연철표기에서 분철표기로 발달하고, 그 다음 단계는 연철표기와 분철표기가 절충된 이중표기, 즉 음절 경계와 형태소 경계가 동시에 고려된 표기법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고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분철표기의 해석이다. 현대국어의 정서법에서 볼 수 있는 분철표기는 각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음으로써 의미 전달의 시각적 효과는 드높이고 있으나 실제 발음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국어 음운사상으로 보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선행 음절말 자음이 폐음화되는 규칙이 있었으며, 이렇게 폐음화된 자음은 선행 음절의 말자음으로 표기됨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만약 이 폐음화 규칙이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도 선행 음절말 자음이 폐음화되고, 그것이 표기에 반영되었다면 틀림없이 분철표기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의 분철표기와 전자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내포된 의미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즉 전자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시각적으로는 앞의 분철법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현실 발음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와 근세국어에 나타나는 분철표기가 외형으로는 현대국어의 분철법과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현실 발음을 반영했음을 밝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몇 가지 음운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2. 중세국어의 조사나 어미들은 양모음형, 양/음모음형, 음모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종래에도 15세기에 나타난 분철표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바는 아니나,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의 분철표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것은 세종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아 왔다(허웅, 1962: 15). 그 결과, 일반적인 표기법 발달 과정에서는 이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된 느낌이 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이들 이외의 문헌(석보상절, 능을경언해 등)에서도 어간(어근)말 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철 표기된 예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이익섭, 1963: 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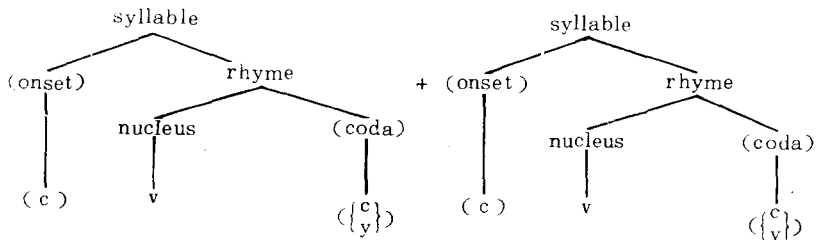
<양모음형>	<양/음모음형>	<음모음형>
과(와)	익/의	더
아, 하	올/울	거(어)
ㄴ	브/브	게(에), 괴(의)
고(오)	기/괴	셔
다	오/우	저
⋮	⋮	⋮

이 접미사들(여기서는 조사와 어미를 편의상 이렇게 부름. 이 아래도 같은)의 중세 이후의 변화를 보면, 양모음형은 양/음모음형을 거쳐 음모음형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양/음모음형은 양모음형이 음모음형으로 바뀌어 그것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음모음형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양모음형이 음모음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으며, 이들 접미사가 기원적으로 양모음 단일형이었음을 가정할 수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음모음화라고 부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을 수 있다.

규칙① 음모음화 규칙

$$\begin{bmatrix} \text{a} \\ \text{o} \\ \text{a}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i} \\ \text{u} \\ \text{ə} \end{bmatrix} / \dots\dots$$

위 규칙은 환경 부분이 선행 어간의 말음절로 구성되는데, 말음절의 핵모음이 V⁻(음모음)일 때는 모음조화 규칙으로 작용하고, V⁺(양모음)일 때는 모음조화과외 규칙으로 작용한다(줄고, 1984). 이 같은 어간 말음절과 접미사의 첫 음절과의 관계를 분기도(tree diagram)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이기문(1979)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어느 단계에서는 국어의 대부분의 접미사들이 양모음 단일형이었으리란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개별

종래에는 어간 말음절의 nucleus와 접미사 첫음절의 nucleus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이러한 음모음화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를 coda+onset의 음운론적 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하다.³⁾

위 분기도의 coda+onset가 실제 표기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다음의 7가지가 있다.⁴⁾

- ① $c + c \longrightarrow c\$c$
- ② $\phi + c \longrightarrow \phi\c
- ③ $c + \phi \longrightarrow \phi\c
- ④ $c + \phi \longrightarrow c\$ \phi$
- ⑤ $\phi + \phi \longrightarrow \phi\$ \phi$
- ⑥ $y + c \longrightarrow y\$c$
- ⑦ $y + \phi \longrightarrow y\$ \phi$

이 7가지 유형중 본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③과 ④이다. 만약 음모음화 과정에서 ③과 ④가 서로 차이 있는 변화를 보인다면, 이 차이는 연철과 분철이라는 단순한 표기법의 차이에 기인했다기보다는 표기 형태 자체가 음운론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론적 차이를 반영한 표기 자료가 18세기 국어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세기 후기 국어의 음모음화 과정과 표기법이 그 과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연철표기와 분철표기가 단순한 표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기임을 밝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음모음화의 범위는 Δ 로 시작하는 접미사 제 1음절의 경우에 국한시켰음을 밝혀 둔다.

2. 음모음화와 분철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Δ 로 시작되는 접미사에는 ‘—으로, —익게, —익서, —익, —온, —을’(이상 조사), ‘—으되, —온되, —을서, —으시—,

접미사에서 입증하려 한 논문으로는 이근규(1982, 1983)과 졸고(1984)를 들 수 있다.

- 3) 김완진(1971 : 116~130)에서는 모음조화 발달에 영향을 끼친 접미사 첫음절의 onset에 대해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이근규(1983)에서는 coda+onset의 구성이 중세국어에서의 음모음화 과정에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한 바 있다.
- 4) coda+onset를 더 세분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대체적인 유형만 보인다.

—을가, —으나, —으라, —으니라, —은디라, —을디라, —으리라, —음,
—으랴, —으려, —으쇼셔, —으뇨, —으니, —으면, —은, —을’ (이상 어미)
등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 주는 음모음화 과정은 동일하므
로 이 가운데 몇몇 예만을 자료로 제시하기로 한다.

2.1. V(C_i) C+V→V(C_i) \$ CV

(1) ㄱ. V⁺(C_i)\$CV⁺ : 다스손(중, 중, 5b),⁵⁾ 혼나흔(명, 2, 56b), 들흔(명, 2,
56b)／고돌(사, , 37a), 꾀돌(사, 2, 3a), 다스술(중, 하, 37b), 마술(중, 하,
11a), 오술(명, 하준, 2b) 잡술(중, 상, 25a), 그로술(사, 1, 60a), 쇠뿔술(중,
하, 61a), 갓웃술(사, 2, 26a), 낫줄(중, 하, 19b), 밧줄(중, 하, 57a) 송긔줄
(사, 2, 57a), 쫓줄(중, 상, 3a), 뭇줄(중, 중, 33b), 바들(사, 2, 3b), 뭇들
(사, 1, 3a), 솟들(사, 1, 22b), 싸흔(사, 1, 9a), 고흔(중, 상, 28b), 질흔
(명, 하준, 22b)／흙그르스로(사, 1, 37a), 뽕오스로(중, 하, 38a), 늦츠로(천,
어, 5b), 뭇츠로(중, 중, 26b)／일꾀툰(중, 어서, 2b), 비로손(명, 2, 12b), 마
즌(사, 2, 56b), 늑즌(중, 후, 71b), 안즌(중, 하, 27b), 붓조즌(명, 하준,
60b), 마툰(천, 1, 17b), 뭇툰(천, 3, 2a), 다흔(천, 3, 2a), 조흔(사, 2, 100
b), 묘흔(사, 1, 55b), 만흔(명, 수상, 54a), 울흔(사, 1, 49b),／뽕들(사, 1,
101b), 사툰(중, 상, 2b), 붓조줄(명, 수상, 31b), 만흔(명, 하준, 65a)／세드
르니(천, 4, 28b), 츄즈니(천, 4, 22b), 막즈니(천, 1, 46b), 안즈니(명, 수상,
35a), 조즈니(사, 2, 30a), 좇즈니(중, 중, 37a), 마트니(천, 1, 63a), 뭇트니
(명, 하준, 14a), 만흔니(명, 하준, 15b).

ㄴ. V⁻(C_i)\$CV⁻ : 거손(명, 수상, 26a)／버들(중, 중, 19a), 거슬(천, 1,
2a), 버슬(천, 2, 59b),／거스르(명, 하준, 2b), 겹트르(명, 하어, 10a)／저근
(중, 상, 12a), 어든(천, 3, 19b), 거믄(중, 상, 6b), 업슨(명, 하준, 17a)／머
글(사, 1, 82a), 주글(사, 2, 68a)／저그니(중, 후, 71a), 주그니(사, 1, 40b),
어드니(천, 3, 21a), 구드니(천, 발, 4a).

ㄷ. V⁻(C_i)\$CV⁺ : 거손(천, 어, 1a), 그르손(중, 하, 57b), 겹손(중, 하,
10a)／뽕들(사, 2, 101b), 금으들(사, 1, 30a), 거출(천, 1, 25a), 겨술(사, 1,
100a), 노르술(천, 4, 60b)／거스르(천, 발, 1a), 무어스로(중, 하, 67b), 붓웃

5) 본고에서 사용된 문헌 약호는 다음과 같다.

용 : 龍飛御天歌(1445), 석 : 釋譜詳節(1447), 두 : 杜詩諺解(1481), 박 : 朴通事
諺解(?), 가 : 家禮諺解(1632), 천 : 蘭義昭鑑諺解(1755), 혼 : 御製訓書諺解
(1756), 종 : 種德新編諺解(1758?), 지 : 地藏經諺解(1765), 사 : 十九史略諺解
(1772), 삼 : 三譯總解(1774), 명 : 明義諺解(1777), 윤 : 御製諺湖南民人等論
音(1783), 무 : 增修無冤錄諺解(1792), 춘 : 열여춘향슈결가(1906~11)

츠로(천, 1, 17a), 겹트르(명, 하존, 29a)／드론(천, 3, 9a), 업손(천, 4, 66a)／어둔(사, 1, 48a), 무룰(천, 1, 53a), 브룰(천, 4, 80a), 드룰(천, 3, 22a), 업술(명, 수상, 2a)／어드니(중, 하, 32b), 구드니(명, 수상, 48b), 무르니(천, 3, 17b), 드르니(천, 4, 9a), 머르르니(중, 하, 35b), 업스니(천, 어, 2a), 그츠니(사, 2, 78b).

ㄱ. $V^+(C_i)SCV^-$: 고를(사, 2, 68a), 여스슬(사, 2, 116a), 갑슬(중, 하, 9b), 밧틀(중, 중, 14b)／밧그르(명, 2, 10b), 남그르(명, 하존, 3a), 싸흐로(천, 2, 40b), 압흐로(명, 2, 44b)／자근(사, 2, 102b), 바든(중, 상, 12b), 사른(중, 하, 4a), 나른(중, 상, 9b), 느른(중, 상, 15a), 안른(명, 하존, 19b), 마튼(천, 1, 22a), 노른(사, 1, 76b), 나흔(중, 하, 40b), 도흔(중, 하, 24b), 만흔(중, 하, 3b), 올흔(명, 수상, 50a)／바들(천, 2, 58a), 츄들(천, 2, 34a), 도홀(명, 2, 53a)／모드니(사, 1, 49a), 닷그니(사, 1, 33a), 올브니(중, 중, 10b).

ㄴ. $V^0(C_i)SCV^+$: 장인논(사, 1, 102a)／빋출(사, 2, 20b), 돌빋출(중, 하, 28b), 뇨빋출(중, 중, 10b)／뇨빋츠로(천, 3, 18b)／시론(중, 상, 28b), 미춘(천, 1, 59b)／밋출(중, 후, 71a)／니즈니(사, 1, 55b), 미츠니(천, 4, 51b).

ㄷ. $V^0(C_i)SCV^-$: 섬기른(중, 중, 8a), 길흔(명, 하존, 33b)／길홀(천, 1, 40b), 빋출(명, 수상, 44a)／콩넵흐로(사, 1, 37b), 싹근(중, 상, 4b), 미든(천, 3, 8a)／시른(천, 범, 1b), 미들(명, 2, 43b), 씨슬(명, 하존, 49a)／시르니(중, 하, 43b), 쑤지즈니(사, 2, 51a), 일흐니(중, 중, 8b).

위의 예는 어간말 자음이 Δ 로 시작된 접미사의 두음으로 연결된 경우의 음모음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들 예에서는 접미사의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모음조화 규칙이 침투되어 양모음 어간에는 양모음 접미사가, 음모음 어간에는 음모음 접미사가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양모음 어간에 음모음 접미사가 연결되어 이미 모음조화 파괴의 단계에 들어간 예도 있고, 음모음어간에 양모음 접미사가 연결된 예들도 적지 많이 발견되어 아직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도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어간말 자음이 ㅅ, 스, 츠, 트, 흥인 예들에서 양모음형의 접미사가 많이 연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관심거리가 된다.

2.2. $V(C_i)C+V \rightarrow V(C_i)C\V

(2) 혹은(천, 4, 76a), 덕은(중, 상, 14b), 돈은(중, 중, 16a), 오놀은(명, 하존, 39a), 사롭은(천, 4, 6b), 범은(천, 4, 23b), 곳은(천, 윤, 3b), 당은(천, 4, 30b)／꼇을(명, 2, 14a), 학을(사, 1, 99a) 잔을(중, 상, 30a), 말을

(중, 상, 24b), 뚝을(중, 하, 58b), 사름을(중, 상, 29a), 밥을(중, 상, 1a),
 갓을(명, 하존, 19a), 강을(중, 하, 49b)／혹으로(사, 2, 79a), 비단으로(사, 1,
 37b), 흙으로(중, 중, 18b), 사름으로(중, 상, 36a), 범으로(천, 윤, 2a), 곳으
 로(명, 2, 51b), 고향으로(중, 중, 8b)／먹은(중, 하, 55b), 적은(명, 2, 71a),
 죽은(중, 중, 3b), 뚝은(명, 수상, 9a), 늙은(사, 2, 29b), 삼은(천, 1, 19b)／
 먹을(천, 1, 70b), 죽을(천, 4, 4b), 녀을(중, 상, 24b), 님을(천, 4, 64a), 삼
 을(중, 상, 8a), 불러남을(명, 하존, 20a)／막으니(천, 전, 7a), 먹으니(중,
 상, 21a), 삼으니(중, 상, 4b), 품으니(천, 1, 28a), 잡으니(중, 중, 1a), 굶으
 니(명, 하어, 7b).

예(2)를 앞의 (1)과 비교하면, $V(C_i)C+V$ 의 연결이란 점에서는 동일하
 나, (1)은 어간말 자음이 접미사의 두음으로 연결된 경우의 음모음화 과정
 을 보인 것이고, (2)는 어간말 자음이 접미사의 두음에 연결되지 않고 분철
 된 경우의 음모음화 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래 전자의 경우는 연음규칙이 적용된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
 고, 후자의 경우는 실제 발음의 반영이 아니라 문법의식의 발달에 따라 어
 간과 접미사를 분리하여 표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2)를 다시 보면, 어간 말음의 음양에 관계없이 양모음형 접미사
 가 연결된 예는 발견할 수 없고,⁶⁾ 음모음형 접미사만 연결됨을 볼 수 있다.
 만약 (2)의 예가 문법의식을 반영한 분철표기라면, 이 분철을 연결로 바꿀 때
 는 (1)에서 볼 수 있는 예와 동일한 형태가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 (2)를 연결로 환원시키면 (1)이 되지 않는다. 즉 (1)에서는 음양의 접미
 사가 공존하는데 비해, (2)는 연결로 환원시키더라도 음모음형만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과 (2)의 차이를 문법의식의 반영 여부에 의한 단순
 한 표기법만의 차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연결과 분철의 차
 이는 음운론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는 이러한 음운론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연결표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간말 자음이 접미사의 두음에
 연음됨을 반영한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강조해 둘 것은 이 경우의 어간말 자음은 외파음이란 사실이다.

분철표기가 음운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2)의 ‘곳을’과

6) ‘일온’(사, 1, 75a)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가 발견된다.

(1)의 ‘고돌／고들’에 주목하기로 한다. ‘곳을’은 연철시키면 ‘고슬’이 되어 ‘고돌／고들’과 같은 형태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분철이 문법 의식을 반영한 표기가 아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런데 왜어유해나 개수첩해신어와 같은 왜학서 등에서는 ‘곳을’ 대신에 ‘곧을’과 같은 형태가 쓰임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곽충구, 1980 : 14). 그렇다면, ‘곳을’과 ‘곧을’은 동일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둘이 동일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s = t$ 이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연철된 경우의 t 이 사용된 자리에 s 이 사용된 예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위치는 음절말뿐이며, 거기서 두 음이 중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의 중화음이 폐음(t)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분철된 어간말 자음이 폐음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어간말 자음의 폐음화가 가능하며, 그것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 분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간말 자음이 폐음화된 음이란 직접적인 논거는 될 수 없으나 그것을 방증하는 현상이 있다.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보면, 자음에 선행하는 음절의 말자음은 ㄱ, ㄴ, ㄷ(ㅅ), ㄹ, ㅁ, ㅂ, ㅇ의 7자음만 나타나는데, 분철의 경우도 자음 앞에서와 같은 7자음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현대국어의 분철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에 어간말 자음이 연음되어 제 음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분철이라면, ㄱ~ㅇ 이외의 자음에서 분철된 예가 발견되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ㄱ~ㅇ 이외의 자음에서 분철된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만약 이들을 분철한다면 그 발음이 폐음화되어 7자음 가운데 어느 하나로 중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실제 발음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철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분철이 어간말 자음의 폐음화를 의미하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고 하겠다.

더우기,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자음의 폐음화가 있었음을 실증해 주는 자료를 1910년대의 완판 방각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3) 일은(葉, 춘, 상, 6), 압울(靑, 춘, 상, 20), 연일은(춘, 상, 20), 속일
이(춘, 상, 20), 숲술이(林, 춘, 상, 6),

이러한 예는 현대 전주지역어에서도 발견된다.⁷⁾

7) 이 예들은 최태영(1983 : 38)에서 가져 온 것이며, 이병근(1975 : 33)에서는 중부

(4) [puagin](부엌은), [puagi](부엌을), [puagesə](부엌에서), [čibi](짚이), [čibi](짚을).

이 예들은 어간말 자음 ㄱ, ㄷ 등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된 다음 다시 연음된 것으로,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자음이 폐음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그럼, 위와 같은 환경에서의 자음의 폐음화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갈, 내부단어경계, 그리고 자음 앞에서만 적용되던 폐음화 규칙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규칙의 단순화를 가져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⁸⁾ 이러한 폐음화는 더욱 확산되어 형태소 내부에서까지 분철된 표기를 볼 수 있는데,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그 예를 몇 개 보인다.

(5) 녀이신다(명, 하존, 6a), 궂으샤되(종, 상, 23b), 닐으시니(명, 2, 44a), 녀이신다(명, 하존, 6a), 울어려(사, 1, 73a), 흘울며(명, 하존, 23b), 울으미여(사, 1, 50b), 막줄으고(명, 2, 44b) 썰은뇨(사, 1, 83b), 벌으시(명, 2, 68a), 절율이(명, 수상, 18a).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연철표기는 어간말 자음이 외파됨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고, 분철표기는 모음을 후행한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된 어간말 자음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임을 알게 된다.

다음에서는 분철된 경우가 연철된 경우보다 음모음화의 진행이 빠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다음의 예들을 보자.

(6) ① 굶논(굶논, 사, 1, 39a), 굶느니(굶느니, 종, 상, 9a), 꾸진논~꾸짓논, 버런논(버런논, 사, 1, 68b), 인느냐(잇느냐, 사, 2, 70b), 진논다(깃논다, 사, 1, 75b).

방언에서도 모음을 후행한 형태소경계에서 자음이 폐음화된 예들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무릎—이~무릅이, 부엌—이~부엌이, 밭—을~밭을, 것—에~것에, 꽃—으로~꽃으로

8) 본고에서는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 폐음화규칙이 침투하여 어간말 자음이 폐음화되고, 이 폐음화된 음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 분철표기라고 보는데 비해, 분철표기 자체로 말미암아 음절경계가 생기고, 이 경계 앞에서 어간말 자음이 폐음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이근구 1981: 118). 그러나 후자의 견해를 따를 때는 본문의 (5)와 같은 예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경륜(經綸, 천, 4, 50a), 경리(經理, 중, 상, 37b), 관녕(關令, 사, 1, 99 a), 관록(官祿, 중, 상, 13a), 관니(官吏, 중, 중, 34a), 군량(軍糧, 천, 4, 14 b), 근니(近來, 명, 수상, 65a)~근리(천, 1, 33b), 근례(近例, 천, 1, 72a)~근례(천, 1, 36b), 논렬(論列, 명, 2, 37a)~논렬(중, 중, 17a), 당률(當律, 천, 4, 33a)~당률(명, 2, 31b), 언논(言論, 명, 2, 26a), 인력(人力, 천, 2, 20b), 인륜(人倫, 명, 수상, 8b)~인륜(명, 2, 58b), 전나도(全羅道, 천, 4, 1a), 전례(前例, 명, 수상, 52b)~전례(명, 2, 20a), 진력(盡力, 중, 중, 25a), 칙력(冊曆, 사, 1, 7b)~칙력(사, 1, 9b), 천니(千里, 사, 2, 20b), 한량(閑良, 천, 2, 64b), 한림(翰林, 명, 하존, 50a)~한림(중, 하, 14a), 현난(眩亂, 명, 2, 9b)~현란(명, 2, 15b), 현록(顯戮, 명, 2, 41a)~현록(천, 1, 41a), 협력(協力, 명, 하존, 7b), 훈련(訓練, 천, 4, 1b)~훈련(명, 하존, 8a), 감난록(勘亂錄, 천, 3, 6b), 감노(甘露, 천, 2, 10a), 불녕(不逞, 천, 2, 19b), 말누하(抹樓下, 명, 하존, 67b).

위의 (6)①은 어간말 자음 ㅂ, ㅅ[ㅈ]이 어미의 첫자음 ㄴ의 조음방법에 동화되어 각각 ㅁ, ㄴ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울림도(Sonority)의 측면에서 보면, 울림도 1도의 선행 음절 말자음과 울림도 4도의 후행 음절 첫자음 사이의 울림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음절의 연결을 원활히 한 것이다.

$$\begin{array}{cccc} \text{ㅂ}, & \text{ㅈ} + \text{ㄴ} & \rightarrow & \text{ㅁ}, \text{ㄴ} + \text{ㄴ} \\ 1^\circ & 4^\circ & & 4^\circ \end{array}$$

(6)②는 선행 음절말 자음 ㄱ, ㄴ, ㄷ, ㅁ, ㅂ, ㅇ이 후행 음절 첫자음 ㄷ과 결합할 때 이 ㄷ이 모두 ㄴ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 가운데 ㄴ+ㄷ의 연결은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매우 흥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begin{array}{ccc} \text{ㄴ}[\text{n}] + \text{ㄷ}[\text{r}] & \rightarrow & \text{ㄷ}[\text{l}] + \text{ㄷ}[\text{l}] \\ 4^\circ & 5^\circ & 4^\circ \end{array}$ 로 후행 음절 첫자음의 울림도를 하향 조정하여 음절 연결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18세기 국어에서는 $\text{n+r} \rightarrow \text{n+n}$ 으로 되어,⁹⁾ 분절음의 연결은 현대국어의 그것과 차이가 있지만 울림도에서는 역시 후행 음절 첫자음을 하향 조정하여 현대국어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begin{array}{ccc} \text{ㅇ} + \text{ㄷ} & \rightarrow & \text{ㅇ} + \text{ㄴ}, \text{ㄷ} + \text{ㄷ} \rightarrow \text{ㄷ} \\ 4^\circ & 5^\circ & 4^\circ \end{array}$ 등에서 후행 음절 두음의 울림도 $\begin{array}{cccc} \text{ㅂ} + \text{ㄷ} & \rightarrow & \text{ㅂ} + \text{ㄴ}, & \text{ㄴ} + \text{ㄷ} \rightarrow \text{ㄴ} + \text{ㄴ} \\ 4^\circ & 1^\circ & 5^\circ & 1^\circ \end{array}$ 등에서 후행 음절 두음의 울림도

9) 18세기 국어에서도 현대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text{n+r} \rightarrow \text{l+l}$ 로 변화되는 예가 간혹 발견된다. 칠량(千兩, 삼, 10, 8), 군령(軍令, 삼, 9, 22).

가 선행 음절 말음의 그것과 동일하게 되든지 또는 후행 음절 두음의 올림도가 하향 조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6)①과 ②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선행 음절 말음의 올림도가 후행 음절 두음의 올림도보다 낮을 때는 선행 음절 말음의 올림도를 상향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행 음절 두음의 올림도를 하향 조정하여 올림도의 격차를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분철된 경우에 음모음화의 진행이 빠른 이유를 보기로 한다.

먼저 예 (1)을 보면, 어간말 자음의 올림도가 접미사 두음의 올림도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6)의 경우를 비추어, 어간 말음의 올림도가 상향 조정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접미사 두음의 올림도가 하향 조정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올림도 조정보다 연음규칙이 먼저 적용됨으로 해서 (이 자체를 전후 음절의 올림도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전후 음의 올림도 조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2)의 경우는 연음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올림도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6)②의 경우와 같이 후행 음절 두음의 올림도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ㄱ, ㄴ, ㅅ[ㄷ], ㄹ, ㅁ, ㅂ, ㅇ + ㅏ → ㄱ, ㄴ, ㅅ[ㄷ], ㄹ, ㅁ, ㅂ, ㅇ + ㅓ
 1° 4° 1° 4° 4° 1° 4° 8° 1° 4° 1° 4° 4° 1° 4° 6°

지금까지의 설명을 도출 과정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kot+ㅏn/	/kot+ㅏn/	/kot+ㅏn/	/kot+ㅏn/
폐 음 화	kot ¹ +ㅏn	kot ¹ +ㅏn	_____	_____
연 음	_____	_____	kotㅏn	kotㅏn
모음조화과피	_____	kot ¹ +ㅓn	_____	kotㅓn
올림도조정	kot ¹ +ㅓn	_____	_____	_____
유 성 음 화	_____	_____	kodㅏn	kodㅓn
	[kot ¹ ㅓn]	[kot ¹ ㅓn]	[kodㅏn]	[kodㅓn]

3. 폐음화에 따른 음운 현상

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단어경계, 내부단어경계, 자음 앞에서 폐음화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앞의 2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모음을 후행한 형태소경계와 심지어는 형태소 내부의 모음 앞에서까지 폐음화규칙이

침투되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폐음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3. 1. ‘을~를’의 교체

(7) ① 고돌(사, 2, 37a), 다스술(중, 하, 37b), 거술(중, 상, 8b) 바돌(사, 1, 46b), 싸홀(사, 1, 9a), 버돌(중, 중, 19a) 거술(천, 1, 2a), 여스술(사, 2, 116a), 잡술(중, 하, 9b), 빗출(명, 수상, 44a), 밧틀(중, 중, 14b), 학울(사, 1, 99a), 잔울(중, 하, 65a), 말울(중, 상, 24b), 뽕울(중, 하, 58b), 사릅울(천, 4, 25b), 밥울(중, 상, 1a), 갓울(명, 하준, 19a), 강울(중, 하, 49b).

② 즈스룰(중, 상, 6b), 외가룰(중, 상, 15b), 하도룰(사, 1, 7b), 혼스룰(중, 상, 4a), 문서룰(중, 상, 15b), 과거룰(명, 수상, 28b), 공부룰(명, 수상, 54a), 니룰(중, 상, 8b), 처녀룰(중, 중, 15a), 스두룰(천, 2, 42b), 계구룰(중, 중, 34b), 혼스룰(명, 수상, 29a), 더하룰(명, 수상, 61b), 권도룰(명, 수상, 51a), 학기룰(중, 상, 23b), 보리룰(중, 상, 28b), 비룰(중, 하, 58b), 학기룰(명, 수상, 22a), 머티룰(사, 1, 20b), 아비룰(명, 하준, 43a).

③ 벼스울(사, 1, 3b), 혼스울(중, 하, 21b), 넝파울(사, 2, 54a), 쇼울(중, 하, 37b), 연고울(중, 하, 14a), 문서울(중, 중, 26a), 제후울(사, 2, 45b), 듀울(사, 1, 40b), 주울(사, 2, 116a), 좌유울(명, 하준, 59a), 주기울(중, 중, 27a) 히리울(천, 4, 8a), 흙덩이울(사, 1, 12b).

④ 덕룰(사, 1, 46a), 발튀측룰(천, 4, 51b), 지선룰(천, 1, 27a), 태연룰(명, 하어, 11a), 도천룰(중, 하, 7a), 아돌룰(중, 하, 40a), 물룰(사, 1, 49b), 말룰(중, 상, 4a), 알룰(사, 1, 101b), 팔룰(사, 2, 31a), 설룰(사, 1, 28b), 얼굴룰(사, 1, 91b), 물룰(중, 상, 4a), 저불룰(중, 하, 11b), 눈물룰(사, 2, 31a), 줄룰(사, 1, 72a), 월룰(사, 1, 72a), 고울룰(사, 1, 66b), 일룰(사, 1, 88b), 사릅룰(사, 2, 56b), 니부시랑룰(중, 하, 20b), 빅방룰(천, 1, 66b), 보정룰(중, 하, 2b), 하눌룰(사, 1, 36a), 연설룰(명, 하준, 37a), 명승룰(명, 수상, 35b), 연설룰(명, 하준, 37a).

위의 예는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목적격조사 ‘을／을, 를／를’이 체언 말음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달리 선택되어 사용되었는지 그 경향을 보인 것이다.

(7)①의 경우는 말자음을 가진 체언에 ‘을／을’이 연결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연결된 형태와 분절된 형태의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된 형태가 선택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7)②의 경우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ㄹ/ㄴ’이 연결되어 중세국어와 동일하며, 모음을 무시한다면 현대국어와도 동일한 선택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 ‘ㄹ/ㄴ’은 ‘V+을/을→V+ㄹ’에 다시 ‘을/을’이 결합된 형태소 중가 현상임은 이미 밝혀졌다. (김완진, 1975)

그런데 (7)③의 경우는 ②의 경우와 동일한 모음으로 끝난 체언인데도 ‘ㄹ/ㄴ’이 아닌 ‘을’이 연결되어 V+V의 연결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음모음형 ‘을’로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 체언말 모음의 음양에 관계없이 모두 음모음형만 나타나는 경향은 앞의 (2)에서 본 분철된 경우의 접미사 선택 경향과 동일하다. 이것은 (7)③의 경우가 비록 V+V의 연결이라도 분철의 경우와 같이 체언 말음에서 폐음화를 의식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쇼+을/의 연결에서 [쇼을]과 같은 형태가 도출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두 음이 다 같이 개방음(의파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절경계를 두기 위해서는 선행 음절 모음을 일부러 점박음(내파음)으로 발음하여 후두 긴장의 골짜기를 만들어야 한다(허웅, 1965 : 210). 그러나 이렇게 발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접미사의 두음 Δ를 삭제시켜 ‘술’의 형태를 얻고, 여기에 다시 ‘을’이 증가되어 ‘쇼를’의 형태가 도출된다.

그런데, (7)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연결된 예가 발견된다는 것은 어간말 모음과 접미사 첫모음 사이에 후두 긴장의 골짜기를 두는 발음이 18세기 후기 국어에서는 실제로 가능했음을 의미하게 되며, 후두 긴장의 골짜기는 어간말 모음에 이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간말 모음이 폐음화됨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간말 모음 뒤에 연결된 접미사 ‘을’의 첫모음 Δ가 울림도 조정에 의해 i로 변화된 것은 (2)의 분철의 경우에 미루어 분명해진다.

(7) ④의 경우는 ①의 경우와 동일한 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ㄹ/ㄴ’이 연결되어, 이것 역시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7) ④를 다시 보면, 어간 말음이 ㄱ, ㄴ, ㅇ인 경우가 있긴 하나 ㄹ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7) ①에서는 발음 ㄹ이 후행하는 조사에 연음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분철된 경우에도 그 예가 드물게 나타난다.

그런데, 국어 음운사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8) 울가>울과(小언, 6 : 26), 물개>물래(家禮, 7 : 23) 허물이>허물리(정속

2), 놀애>놀래(첩해신어, 6:8), 달애여>달래여(사, 2, 84a).

여기서 보면, ㄹㅇ이 ㄹ리로 바뀌어 선행 음절말 자음 ㄹ이 다음 음절의 두음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폐음화된 ㄹ 다음에서 등자음 첨가 규칙의 적용으로 ㄹ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줄고, 1986 참조). 이러한 경향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 17세기에 오면 자못 일반화된다(이기문, 1972b: 22).

그렇다면, 발음이 ㄹ인 체언에 조사 ‘을/을’이 연결될 경우도 체언 말자음 ㄹ이 조사의 두음에 연음되기 전에 [형태소경계 앞에서 폐음화되고, 그 다음에 등자음 ㄹ이 첨가되어 (7) ④에서 보는 ‘아돌를’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를/를’이 점점 확산되어 사용되자 그것의 영향으로 ㄹ 이외의 자음 아래서도 부분적으로 ‘를/를’을 선택하는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설명으로 볼 때,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나타난 목적격 조사의 혼란은 체언 발음의 폐음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럼 중세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현상, 특히 (7) ③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말, 내부단어경계, 자음 그리고 앞에서 본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와 십지어는 형태소 내부의 모음 앞까지 침투한 자음의 폐음화 현상이 형태소경계 앞의 모음에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2. 등첨가

18세기 후기 국어에는 중세국어에서 등중성체언이 아니었던 체언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면, 마치 등중성체언처럼 ㅎ이 나타나는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9) ① 나조흔(夕, 두초, 19, 42), 하늘해(天, 석, 6, 19), 안해(內, 용, 53), 암호란(雌, 박초, 상 2),

② 초히라(醋, 무, 1, 19b), 발홀(米, 종, 하, 33a), 상해(床, 윤, 7b),步히며(무, 1, 22b), 힘히(力, 사, 1, 27b), 庫히(무, 1, 56a), 뼈히(骨, 훈, 2, 10a), 돌히(女息, 지, 상, 9b), 솔홀(松, 가, 1, 38a).

(9) ①은 중세국어에서 등중성을 가졌던 체언들로 이 ㅎ은 체언 발음이

10) (9) ②의 예는 홍운표(1986)에서 가져 온 것이다.

모음, ㄴ, ㄹ, ㅁ 등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러다가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츰 소멸되어 갔다. 그런데 (9) ②는 중세국어에서 음증성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들이라도 ①의 소멸과는 달리 동일한 환경에서 오히려 음이 첨가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홍운표, 1986 : 136~138).

이것 역시 어간 말음의 폐음화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간 말음이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되자 앞의 (7) ③에서 본 바와 같은 후두긴장을 초래하고, 이 후두긴장을——소멸의 운명에서 아주 약화된 음증성체언의 음과 유사하게 인식하여——음으로 표기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¹¹⁾

3.3. 유기음 표기

유기음의 표기는 그 표기의 특이함 때문에 일찍부터 국어 표기법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18세기 국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히’와 같은 표기의 출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해명이 없다. 이것 역시 폐음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다음의 예를 보자.

(10) ① 겨터(가례언해, 2, 10), 고터(천, 1, 14a), 그티고(천, 2, 2a), 노픈(사, 1, 76b), 조차(사, 2, 85a), 도토아(명, 하어, 17a).

② 것터(명, 하존, 10b), 곳터(중, 하, 42a), 곳투야(명, 하존, 53b), 곳티고(중, 중, 23a), 집픈(명, 하존, 53a), 놀픈(중, 후, 71b), 쏘차(명, 수상, 67b). 도토아(명, 수상, 22a), 복녀리(사, 2, 69a).

③ 것히(중, 하, 43a), 곳투야(명, 2, 44a), 집흔(천, 발, 2b), 놀흔(중, 상, 17a), 집홀(藥, 중, 하, 43b), 콩넙호로(사, 1, 37b), 도호아(명, 2, 14b), 복녀희(사, 2, 69b).

④ 입은(葉, 춘, 상, 6), 암울(前, 춘, 상, 20), 연입은(춘, 상, 20), 습습이(林, 춘, 상, 6).

(10) ①과 같은 표기 방식은 16세기경까지 주류를 이루었고, ②는 17세기 이후부터 근세국어 시기에 일관되어 사용되던 표기 방식이다. 그리고 ③은 18세기 후반에 흔히 발견되는 표기 방식이다(홍운표, 1986 : 130). ④는 앞의 예(4)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1910년대의 완관 방각소설들에서 발견되는

11) 현대국어 방언에서는 ‘뽕고’를 ‘뽕코’가 아닌 ‘뽕꼬’로 발음하는 것을 흔히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음이 약화되어 후두 긴장으로 바뀌고, 그것이 후속 자음에 결합된 것이다. 이로 볼 때, 후두 긴장을 음으로 표기한 (9) ②의 표기는 충분히 납득이 되리라 본다.

예들인데, 이것 역시 유기음의 표기와 관련이 있어 여기에 다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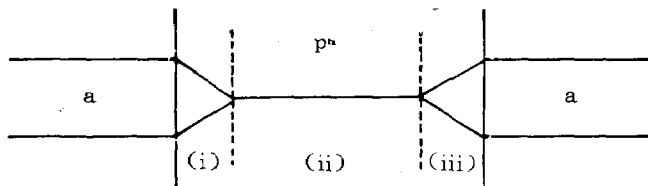
(10) ①은 형태소경계가 음절경계로 조정된 음소적 표기로서, 그것은 어간말 자음인 유기음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아직 폐음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아직도 의파음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다.

②는 표기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문법 의식의 반영이요, 음운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간 발음을 표기한 자음은 내파음 표기로서 파열음의 폐쇄 지속을 반영하고, 어미 두음에 나타난 자음은 어간말 자음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전광현, 1967 : 48 홍윤표, 1986 : 129).

②의 표기가 문법의식의 반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우나, 음운론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다음에서는 파열음의 폐쇄 지속을 표기에 반영시키지 않던 ①과 같은 표기 방식에서 그것을 반영시킨 ②와 같은 표기 방식으로 바뀌게 된 음운론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파열음은 그 조음과정으로 볼 때 (i)폐쇄, (ii)지속, (iii)개방의 3단계를 지넘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3단계를 모두 음절 두음으로 수용하면 ①과 같은 연결표기가 된다. 그리고 (i) 단계인 폐쇄의 단계를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ii) 단계인 지속의 단계를 음절경계로, (iii) 단계인 개방의 단계를 후속 음절의 두음으로 인식하면 ②와 같은 표기가 된다.

그렇다면, ②에서 파열음의 조음과정을 전후 음절에 분속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등의 발음은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를 경험하고, 여기의 ㅋ,

ㅌ, ㅍ, ㅊ을 포함한 여타의 자음은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아직 폐음화되지 않은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즉 전자에서는 폐음화로 말미암아 음절경계가 인식되자 후자도 그것의 영향으로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음절경계를 인식하고자 하나 아직 이 경우에는 폐음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ii) 단계인 지속 단계를 음절경계로 인식한 듯하다(줄고, 1986 참조).

③은 ㅋ, ㆁ, ㅌ, ㅍ을 ㄱ, ㅅ, ㄷ, ㅂ과 ㅎ의 결합으로 인식한 재음소화에 의한 표기로 해석하고 있다(곽충구, 1980: 16). 이 해석은 ①의 발음과 ③의 발음이 동일하나 재음소화에 대한 고려의 유무에 따라 표기 형태만 달라졌다는 견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양자의 발음이 동일했을까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재음소화에 의해 표기 형태만을 달리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음도 두 음으로 분리되어 발음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 온 바에 의하면, 18세기 국어의 표기에서 철자와 철자 사이에는 음절경계가 강하게 인식되며, 선행 음절 말 자음은 폐음화되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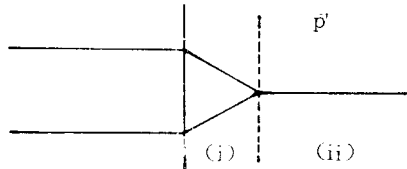
‘닙히’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선행 음절 ‘닙’은 [nipʰ]으로 폐음화되어 발음되므로 그 뒤에 음절경계가 생겨 말음 [pʰ]가 다음 음절로 이동(연음)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닙히’는 [nipʰ \$ hi]와 같이 발음되어 ‘니피’와 ‘닙히’의 발음은 동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의 견해는 수정될 여지가 있다. 만약 ‘닙히’의 ‘ㅂ’이 폐음화된 음이 아닌 외파음임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위의 견해는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것은 18세기 국어에서는 음절 말 자음이 7개만 나타나며, 그것은 폐음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어의 ㆁ, ㅋ, ㅌ, ㅍ은 각각 ㅅ, ㄱ, ㄷ, ㅂ과 ㅎ의 제거적 결합으로 분석되며, ㅅ, ㄱ, ㄷ, ㅂ은 ㅎ과 결합하여(축약하여) ㅊ, ㅋ, ㅌ, ㅍ이 된다(허웅, 1965: 168). 그런데, 이러한 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ㅅ, ㄱ, ㄷ, ㅂ이 외파음[č, k, t, p]이라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만약 폐음[čʰ, kʰ, tʰ, pʰ]이면 ㅎ과 축약되어 ㅊ, ㅋ, ㅌ, ㅍ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 앞 줄의 설명에서도 바로 이러한 축약이 불가함을 보여 주는데, [čʰ]의 폐음화된 음 [čʰʰ]는 [tʰ]과 중화되어 만약 이 [tʰ]가 ㅎ과 축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ㅌ이 되어 예상하는 음 ㅊ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ㅅ + ㅎ → ㅊ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ㅅ이 반드시 외파음이라야 함을 단적으로 말

해 주는 것이며, 아울러 $\text{ㄷ} + \text{ㅎ} \rightarrow \text{ㅌ}$, $\text{ㄱ} + \text{ㅎ} \rightarrow \text{ㅋ}$, $\text{ㅂ} + \text{ㅎ} \rightarrow \text{ㅍ}$ 의 경우에도 ㄷ , ㄱ , ㅂ 이 폐음이 아닌 외파음이라야 함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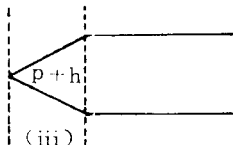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음화된 음 $[\text{k}^{\text{h}}, \text{t}^{\text{h}}, \text{p}^{\text{h}}]$ 가 ㅎ과 축약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위의 도표에 의해 설명하면, $[\text{k}^{\text{h}}, \text{t}^{\text{h}}, \text{p}^{\text{h}}]$ 는 (i) 단계와 (ii) 단계만 있고, (iii) 단계는 생략된 음이다.



이에 비해, 외파음 $[\text{p}]$ 와 $[\text{p}^{\text{h}}]$ 는 (i), (ii)단계는 폐음의 경우와 동일하고 (넙 $[\text{nip}^{\text{h}}]$, 닙 $[\text{nip}^{\text{h}}]$), (iii) 단계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넙이 $[\text{nipi}]$, 닙이 $[\text{nip}^{\text{h}}\text{i}]$).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text{ㅍ} = \text{ㅂ} + \text{ㅎ}$ 으로 제기적 분석이 가능한데, (iii) 단계에서 ㅂ의 요소를 제거하면 ㅎ이 남게 된다. 따라서, ㅂ과 ㅎ의 결합은 (iii) 단계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iii) 단계가 생략된 폐음화된 음 $[\text{k}^{\text{h}}, \text{t}^{\text{h}}, \text{p}^{\text{h}}]$ 가 ㅎ과 축약될 수 없음도 알게 된다.

그리고 외파음 $[\text{k}, \text{t}, \text{p}]$ 가 ㅎ과 축약이 가능한 것은 위의 경우에 비추어 간단히 설명된다. 외파음은 (iii) 단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하는 ㅎ은 외파음의 (iii) 단계에 흡수되어 두 개의 음이 하나로 축약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넙히’의 음가를 추정하면 $[\text{nip}^{\text{h}} \text{ } \$ \text{ hi}]$ 가 되는데, 그럼 $[\text{ni} \text{ } \$ \text{ p}^{\text{h}}\text{i}]$ 가 $[\text{nip}^{\text{h}} \text{ } \$ \text{ hi}]$ 로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넙+이’에서 ‘넙’의 ㅍ이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를 경험하게 되나 ㅍ

자체에 내포된 강한 유기성까지는 폐쇄시키지 못해 이것이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④는 1910년대의 완관 방각소설이나 현대의 몇몇 방언에서 나타나는 예로서, 앞의 (3)에서 이미 제시된 것들이다. 이 경우 역시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의 폐음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 즉, 어간말 자음 표이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까지는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를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유기성까지 폐쇄시키지는 못했는데, ④의 경우는 완전한 폐음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예들이다. 그리고 앞의 (2)를 이 경우와 동시에 고려하면, (2)에만 적용되던 폐음화 규칙이 점점 그 적용 범위를 확산시켜, ④의 예가 나타나는 시기에 오면, 비록 임의적이긴 하나 형태소경계에서 모든 어간말 자음이 폐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것은 규칙의 단순화로 해석된다.

예 (10)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①은 유기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에서 폐음화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즉 의파된 형태를 연철표기로 반영시킨 단계이고, ②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자음들(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폐음화되는 현상의 영향으로 유기파열음의 3단계 조음과정중 제 2단계인 지속의 단계를 음절경계로 인식하게 된 단계이다. 그리고 ③은 폐음화를 경험하나 강한 유기성은 그대로 유출된 단계이며, ④는 완전한 폐음화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어형의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는 공시성의 축 위에 반영되는데, 위의 (10)의 ①~④는 현대방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밥하고 떡하고 술하고 많이 먹었다.’라는 발화에서 ‘밥하고’, ‘떡하고’의 음성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 (11) ① [pap^hago], [t^ək^hago]
 ② [pap^hp^hago], [t^ək^hk^hago]
 ③ [pap^hhago], [t^ək^hhago]
 ④ [pabago], [t^əgago]

예 (11)에서 ①은 각각 /pap+hako/, /t^ək+hako/에서 도출된 음성형인데, 이 경우에는 어간말 자음 /p/와 /k/가 의파음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h/와의 축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②의 경우는 ①의 [p^h], /k^h/의 3단계 조음과정중 제 2단계인 지속 단계를 음절경계로 인식하고, 제 1단계(폐쇄)와 제 3단계(개방)를 각각 전후·음절에 분속시킨 것이다. ③의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어간말 자음 /p/나 /k/가 먼저 폐음화되고, 그렇게 되니 후행의 /h/와의 축약이 저지되어 ③의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축약에 의해 ②의 유형을 먼저 경험한 다음 불완전한 폐음화에 의해 유기성이 유출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④의 생성 과정을 볼 때는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는 축약에 의해 ①의 유형이 산출된 다음, 다시 모음 앞에서 폐음화되고, 여기에 연음규칙과 유성음화규칙이 차례로 적용되어 도출된 형태이다.

(10)과 (11)의 도출 과정을 다음에 보인다.

기저형	음운축약	음운분할	약폐음화	강폐음화	연음	유성음화	음성형
/nip ^h +i/	—	—	—	—	nip ^h i	—	[nip ^h i]
	—	nip ^h p ^h +i	—	—	nip ^h p ^h i	—	[nip ^h p ^h i]
	—	—	nip ^h h+i	—	nip ^h hi	—	[nip ^h hi]
	—	—	—	ip ^h +i	nipi	nibi	[nibi]
/pap ^h +hako/	pap ^h ako	—	—	—	—	pap ^h ago	[pap ^h ago]
	pap ^h ako	pap ^h p ^h ako	—	—	—	pap ^h p ^h ago	[pap ^h p ^h ago]
	pap ^h ako	—	pap ^h ha-ko	—	—	pap ^h hago	[pap ^h hago]
	pap ^h ako	—	—	pap ^h ako	papako	pabago	[pabago]

3.4. ㄹ~ㄹ표기

ㄹ이 ㄷ으로 바뀌어 표기된 예는 이미 16세기 자료인 이문행실도에서 발견되는데, 18세기에 들어오면 그 예는 흔하게 발견된다.

현대국어에서 ㄷ과 같은 발음을 듣기 어렵고, 또 중세국어 이후 ㄹ의 연결로 쓰이던 표기 형태가 ㄷ의 형태로 바뀌어 표기되므로, 이것이 단순한 표기의 혼란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면에 어떤 음운현상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얻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기로 하되, 이것 역시 음절말 자음의 폐음화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12) 썰리(천, 2, 66b)~썰니(천, 차, 3b), 별로(천, 1, 60b)~별노(중, 서, 6a), 홀로(천, 1, 13b)~홀노(중, 상, 7a), 줄놀(柄, 명, 하준, 32a), 물너

(중, 하, 33a) 말니라(명, 2, 17b), 결릭(명, 2, 71b)~결너(명, 하존, 29a), 달래여(사, 2, 84a)~달내여(사, 2, 113a), 돌노(石, 중, 중, 24b), 길러(천, 4, 58a)~길너(중, 상, 22b).

‘썰ㄹ+이’는 중세국어에서 ‘썰이’로 나타나는데, 이 ‘썰이’의 ㄹ이 r의 폐음화된 음 l임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기문, 1972b: 77).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폐음 l은 동자음 첨가규칙에 의해 ll로 중복되는데, 이것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 ㄷ형(썰리)이다. 그러므로 (12)에서 전자의 ㄹ이 폐음 l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어간말 자음이 ㄹ인 어휘를 보면, 이를테면, ‘달(月)’과 같은 예는 단어경계, 내부단어경계, 그리고 자음 앞에서는 폐음화되어 그 음이 l이 되지만(예, 달도), 모음을 후행시킨 형태소경계 앞에서는 폐음이 아닌 외파음이기 때문에 연음규칙이 적용되고, 이것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 연철이다(예, 다리).

이제 (12)의 전자의 ㄹ이 폐음 l임이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ㄹ이 ㄹ으로 바뀐 현상은 전자의 폐음 ㄹ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음절경계가 생기게 되니, 그것 뒤의 두음 ㄹ은 마치 어두에 사용된 ㄹ과 유사한 환경이 되어 ㄹ이 ㄴ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¹²⁾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어두나 폐음 다음에서 ㄹ음이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그리고 ㄷ형과 ㄹ형이 공존하므로 ㄹ→ㄴ은 주의적임도 알 수 있다.

18세기 국어에서는 음절말 자음은 7개이고(7종성), 이들은 모두 폐음화된 음임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들 7자음 다음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다면, 이들 7자음이 폐음성의 자연부류(natural class)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국어에서 ㄹ로 시작된 접미사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내부단어경계에서도 그러한 예가 드물므로 여기서는 고유어의 복합어와 유사한 음운현상을 보이는 한자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3) 도리(道理, 천, 발, 3a), 허렁(虛冷, 천, 2, 4a), 허락(許諾, 중, 하, 47b), 의란(疑亂, 명, 2, 36a), 사례(謝禮, 중, 상, 16a), 의리(義理, 천, 윤, 3a), 스룬(絲綸, 천, 2, 54b), 명의록(明義錄, 명, 2, 1a).

12) ‘달리’와 같은 예는 ‘달니’(천, 1, 51b)로 변한 다음 다시 ‘먼니’(어제 유왕세자 책례후 각도 신군포 절반 탕감 윤음, 1a)로 변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선행 음절 말음 ㄹ이 후행음 ㄴ에 역행동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상호동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에서 보면, 理, 洽, 諾, 亂, 禮, 綸, 錄 등은 전부 음절 두음이므로 나타나며, 선행 음절 말음은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모음 다음에는 폐음화 현상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즉 절음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 두음에서 ㄱ→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제시된 예 (6) ②를 다시 보면, 그 예들은 선행 음절의 말자음이 ㄱ, ㄴ, ㄷ, ㄹ, ㅂ, ㅅ 등으로서¹³⁾ 7종성의 범위 내에 들며, 모두 자음 앞에 나타나므로 이들 자음이 폐음화된 음임은 확실하다. 따라서, 이들 7종성에 후행하는 ㄴ이 ㄴ으로 변화되는 것은 선행 음절 말음의 폐음화 따른 절음으로 마치 어두에 사용된 ㄴ이 ㄴ으로 변하는 것과 동일한 음운 현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2)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유어의 예인 (12)의 경우는 ㅍ→ㅂ의 예만 발견되나 그것은 고유어에서 ‘ㄱ, ㄴ, ㄷ, ㄹ, ㅂ, ㅅ+ㄴ’과 같은 결합으로 된 어휘가 없기 때문이며, 만약 이와 같은 행태소 결합의 예가 있다면 틀림없이 ‘ㄱ, ㄴ, ㄷ, ㄹ, ㅂ, ㅅ+ㄴ으로 음운변화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의 발견은 위의 결론을 회의적으로 생각케 한다.

- (14) 하령(下令, 명, 수상, 25a)~하녕(禔, 1, 52a), 당화루(望華樓, 禔, 4, 1a),
의논(議論, 중, 중, 45b), 의례(儀禮, 명, 수상, 19a),

선행 음절 말음이 7종성이 아닌 모음으로 된 경우에도 ㄴ이 ㄴ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미 앞의 예 (7)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모음 다음에서도 절음되어 발음될 수 있던 당시의 언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것 역시 7종성 다음에서의 ㄱ→ㄴ과 다를 바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ㄱ→ㄴ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규칙② ㄱ→ㄴ / [—released]——

4. 결 론

기원적으로 양모음 단일형이었던 국어의 대부분의 조사나 어미들은 그 후 음모음화 규칙의 적용으로 음모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18

13) ㄷ의 예가 없음은 ㄷ말음을 가진 한자가 없기 때문이다.

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 자료에서 분철된 경우가 연철된 경우보다 음모음화의 진행이 빠르게 주목하고, 그 원인이 어간(근)말 자음의 폐음화에 기인한 올림도 조정의 결과임을 밝혔다. 따라서, 분철은 어간(근)말 자음의 폐음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폐음화로 야기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살펴 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8세기 후기 국어에서는 주로 체언 말음이 자음일 때는 목적격 조사 ‘을’이, 도음일 때는 ‘를/를’이 선택되어, 모음의 음양을 무시하면 현대 국어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체언 말음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을’이 선택되기도 하고,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를/를’이 선택되기도 하여 현대 국어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체언말 모음의 폐음화가 그 원인이 되고, 후자는 체언말 자음(ㄹ)의 폐음화로 말미암은 등자음 첨가규칙의 적용으로 생성된 ‘를/를’이 여타의 자음에도 영향을 끼쳐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② 중세국어에서 중중성을 가지지 않았던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가 연결될 때 중이 첨가되어 마치 중중성체언의 경우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체언말 모음의 폐음화로 인한 후두긴장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유기음의 표기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겨터’와 같이 어간(근)말 자음이 연철된 유형은 그 말자음이 외파됨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고, ‘것터’와 같은 유형은 유기음의 3단계 조음과정(폐쇄, 지속, 개방) 가운데 2단계인 지속의 단계를 음절경계로 인식하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것히’와 같은 유형은 말자음이 폐음화를 경험하나 내포된 유기성은 폐쇄되지 않은 상태를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며, ‘입은’(葉)과 같은 유형은 말자음이 완전히 폐음화됨을 표기에 반영시킨 것이다.

④ 18세기 후기 국어에서는 ㄹ→ㄹ형이 수의적으로 교체하는데, 이 가운데, ㄹ형은 선행 음절말 자음 ㄹ의 폐음화로 후행 음절 두음에 ‘ㄹ→ㄹ/〔-released〕’의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43.
 김완진(1971), 『국어 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_____(1975),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오종갑(1984), “모음조화의 재검토”, 『목천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_____(1986), “2중표기와 그 음가”, 『어문학』 47.
 이근규(1981), “15세기 국어의 모음조화와 울림도 동화”, 『한글』 171.
 _____(1982), “중세국어의 명사형 접미사의 모음조화”, 『언어』(충남대) 3.
 _____(1983), “국어의 모음조화의 고찰에 대한 반성”, 『어문연구』(충남대) 12.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_____(1972a), 『개정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_____(1972b), 『국어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
 _____(1978), “15세기 표기법의 일고찰”, 『언어학』(한국언어학회) 3.
 _____(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단국대) 9.
 이병근(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이익섭(1963), “15세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국어연구』 10.
 이현규(1976), “국어 표기법의 사적 연구”, 『한국어문논총』(우촌 강복수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허 응(1965),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
 허응, 이강노(1962), 『주해 월인천강지곡상』, 신구문화사.
 홍윤표(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고려대) 19.